

지방 정기시장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

— 장성 황룡장을 중심으로 —

홍 성 흡**

요약 : 이 글은 장성군 황룡장을 소재로 지방 장시의 변화과정을 구술과 기억자료에 의해 재구성한 것이다. 장시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검토하는 시도이다. 황룡장은 18세기 중엽에 장시가 처음 있었다는 것이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시장 출현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조선 후기경 이미 인근 6개군의 주민들이 황룡장을 찾는 장시로 성립되어 있었고, 특히 우시장으로서 성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장시가 번성하게 된 데에는 세금 징수와 1차 산품의 매집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황룡장으로서의 전성기였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정치적 이유로 장터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시키면서 다시 장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근대화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물결이 밀려 오면서 독자적인 상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광주권에 편입되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확충과 이농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는 우시장으로서의 황룡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데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지금은 인근에서도 규모가 작은 시골 장터로 변했고 개점 휴업상태의 상설 상점들도 많은 상태이다. 앞으로 황룡장은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특산품의 유일한 유통 경로로 자리매김되는 등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장성 황룡, 지방 장시, 구술과 기억, 시장권

1. 지방 정기시장을 통해서 본 지역사회의 변화

장시(場市) 혹은 장터(marketplace)란 농민, 수공업자, 어민 등의 직접 생산자들이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서로 물산을 교환하는 정기시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서울

과 지방 각지에서 장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일반인들의 교역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대길, 1993). 그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발달되고 지주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장시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주기적인 재난과 기근 등으로 물자의 교역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방의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KRF-2002-042-B0010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생적으로 장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장시가 발달되기 시작하자 소도시들에서는 5일(혹은 3, 7일)마다 날을 달리하여 장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장시를 개설하는 관행이 법제화되어 지역마다 하나의 교역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장시는 취급 품목별로 기능이 분화되어 사회경제적 분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하였고, 장터와 장터를 연결하는 장길이 촘촘하게 형성되었다(정승모, 1992). 이처럼 장시가 전국 도처에 일반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장시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절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이라는 신분제사회에서는 양반들이 장터 출입하는 것을 꺼렸고, 혼란한 시대상황에서는 민란을 모의하고 일으키는 배후지로서도 기능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황룡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장터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장터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역연구에서 대부분 마을공동체를 마치 외부와는 분리된 닫힌 체계, 즉 독립된 소우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 즉 실제의 마을공동체란 외부 세계와 연관을 맺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마을의 경계를 뛰어넘는 연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시란 새로운 문제 연구 영역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한다. '황룡장'이라는 장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지역 사회의 연관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소위 '황룡권'이라는 보다 넓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에 대한 연구 영역 개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장성 황룡권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기층구조의 지속과 단절에 대한 연구'라는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사학, 역사학, 한문학 전공자들과의 협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문헌 자료를 통해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문화생활사의 단면을 구술과 기억에 의존하여 재구성해보는 새로운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완벽한 과거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할 때, 구술과 기억에 의존한 연구는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는 서로 상이한 기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상충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논의의 범위는 장성 황룡장의 현재의 모습을 고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장시의 역사, 특히 조선 말부터 '우시장'으로서 성립되어 있다가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우시장이 더욱 번창하여 정점을 이루게 되어 전문시장으로서 인근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다가, 해방 후 인근의 광주가 성장하면서 장성이 점차 '광주권'에 편입되면서 황룡장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변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시장(장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일찍부터 경제인류학 분야에서는 시장체계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와 시장 및 장터에 대한 민족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시장체계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서는 크게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bottom-up이론)과 국가의 체제 정비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다는 이론(top-down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이론에서는 직접 생산자들(농민, 수공업자, 어민 등) 간의 자연스러운 재화교환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장이 출현하고 발달한다고 본다. 시장체계는 단순한 직접 생산자들의 교환체계가 상업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적 교환체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새롭고 더 큰 시장으로의 성장과 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은 시장 교환 참여자들의 이득을 증대시키고 개방성과 더 큰 경제적 접합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수평적인 직접 생산자 대 직접 생산자의 교환에서 수직적인 농촌 대 도시 간의 교환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발적인 시장출현 및 발전이론에서는 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적 분업화가 진전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잉여가 생산되고 교역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시장 발달의 추동력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베리는 잉여생산기술의 발달(Berry, 1967)을, 스킨너는 인구성장(Skinner, 1964)을, 샌더스(Sanders, 1956)는 지형학적, 기후적 요인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후자의 이론은 폴라니(K. Polanyi)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지역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들의 압력과 자극에 의하여 시장이 출현, 발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출현하는 곳은 사회문화적 교차로인데, 특히 서로 다른 생태 지대 또는 지역경제 간의 교역이 발달된 곳에서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시장은 대상 무역이나 원거리 교역로를 따라 발달되는 것이 보통이고, 지역사회 내의 대내교역보다는 대외교역이 우선시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역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외부적 자극으로 드는 요인에 있어 강조점이 서로 다

르다. 예를 들어 메이이수와 반스, 서비스는 원거리 교환(Meillassoux, 1971; Vance, 1970; Service, 1975)을, 애플비는 도시부에서의 식량의 필요(Appleby, 1976)를, 스미스는 계층 혹은 신분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의 수요(Smith, 1974)를 그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들 이론 이외에도 (경제)지리학 분야에서는 시장의 출현과 발달에 대해 거리에 따른 수확체감의 법칙에 기초한 공간모델(Thunenn), 지역조직에 대한 입지모델(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이외에 시장 발달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니는 기능에 대한 논의들이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워델과 브렌튼(Waddell, 1972; Blanton, 1983)은 시장의 발달이 농민들이 자가 생산했던 재화들을 전문화된 생산자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농업생산에 보다 강도 높은 노동집중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장체계는 1차 생산자들을 위한 일종의 노동집중 혹은 노동 절감 장치로 기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체계는 국가의 수취체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잉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구적 속성을 띠게 됨과 동시에 농민층 내부의 분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시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버든(Berdan, 1989)은 이러한 주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단 만들어진 시장은 국가 수준의 통제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시장참여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고, 특히 자유시장경제가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국가통제는 필연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울프와 플레트너(Wolf, 1955; Plattner, 1975,

1980)는 멕시코 차아파스주의 산 크리스토폴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다종적 사회집단에서 이동상인들이 문화적 중개자(cultural broker)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스킨너(Skinner, 1964; 1985)는 중국 남부의 쩌크완 지역에 대한 사료를 토대로 크리스탈러와 로쉬의 중심지이론 모델이 실제 중국의 사례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300여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지역시장체계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전통적인 중국 농촌사회의 기초 단위는 '표준 시장 공동체(standard marketing community)'라는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스킨너의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이 표준 시장 공동체가 통혼권을 구성하여 내혼 단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스미스(Smith, 1974; 1976; 1977)는 서부 과테말라에 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중국에 비해 국가의 정치적 지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다종족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중국과는 달리 표준 시장보다는 지역의 중심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역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의 장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그 이전 시기의 장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5세기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장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어, 고려 후기의 장시에 대한 김삼현(1992)의 연구와 조선 전기에 대한 宮原免一(1956; 196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조선 중기와 후기의 장시에 대한 연구로는 김일곤(1962), 김병하(1963), 임병태(1976), 한상권(1981), 정승모(1983), 이세영(1983), 이호영(1986), 이경식(1987), 오성(1987), 이현창

(1990), 박선희(1996)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사료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서 본 연구가 선택한 기억과 채록에 근거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비록 정승모의 연구라든가 류우익(1972), 이덕성(1976) 등의 연구가 사회과학적 혹은 인류학적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학술 논문으로서 기억과 채록을 방법으로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철호(1991) 등에 의한 장시에 대한 르포성 글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성을 얻기 위한 성격의 글들로서, 장시의 분위기를 읽는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상의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장성군 황룡강의 현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부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3. 조사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

장성군은 전라남도의 북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예로부터 한양으로 통하는 도로가 나주로부터 발원하여 지나가는 곳이다. 동쪽으로는 담양군, 서쪽으로는 영광군, 남쪽으로는 광주시, 북쪽으로는 정읍군과 고창군이 위치하고 있다. 병풍산에서 시작되는 용흥천과 용두천이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의 본류를 이루며, 장성읍 근처에서 월계천과 합류하여 광주로 흘러내리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담양쪽과는 병풍산과 불태산이 면해 있고, 영광쪽으로는 고성산, 태청산, 문수산이 줄지어 있다. 이처럼 전라남도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과거에는 나주로부터 시작되는 길 이외에는 타지역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않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해 광주와 목포, 정읍과 연결되고, 지방도가 장성읍을 중심으로 담양, 함평, 영광, 고창, 순창 등과 통해 있다. 동학혁명 때 황룡면 월평리에서 관군과 동학군이 전투를 벌여 관군이 대패하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탑이 건립되어 있다.

1600년 선조 때 장성현과 진원현이 합쳐져 장성현이 되었고, 일제 치하인 1914년 군면통폐합시에 영광군 삼북면, 내동면, 현내면을 합쳐 삼계면으로, 삼남면, 외서면을 합쳐 삼서면으로, 외동면과 함평군 대화면과 오산면 일부를 합쳐 동화면으로 하여 장성군에 편입되었고, 그 대신 갑향면이 담양군 관할로 이관되었다. 원래 장성읍은 성산리에 있었는데, 이 때 지금의 읍 자리로 옮겨왔다. 그 이후 1975년 장성댐 공사로 인해 북상면이 수몰되어 폐지되었고, 1983년 남면 삼태리의 일부 지역이 광주광역시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략 장성군은 중앙에 읍과 황룡면, 동화면이 위치하고 있고, 동북부에는 산악지대인 북상면과 북하면, 노령산맥의 남부 지류가 벗어나와 있는 진원면과 남면, 서쪽의 비교적 평탄한 삼계면과 삼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성은 조선 시대 이래 광산 김씨, 울산 김씨, 행주 기씨, 황주 변씨(奇卞兩金) 등 네 성씨의 향반 세력의 힘이 강력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향리나 아전 등의 힘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일면 신흥리, 북이면 신평리, 황룡면 황룡리와 필암리, 아곡리, 북하면 기동리와 증평리, 오산리 교촌 등을 장성군내의 대표적인 반촌 마을들이었다.

장성군의 인구는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1965년의 13만 여명을 정점으로 하여 2000년 말 현재 5만 6천여명이 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의 주요 산물은 쌀, 보리, 고구마, 콩 등이고 딸기와 채소류, 화훼 등의 생산도 근래 들어 많이 늘어났다. 예부터 꽃감의 생산이 유명하여 동국여지승람에도 지역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손이 많이 가는 꽃감 대신에 오히려 단감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 외의 지역 특산품으로는 비자와 생강, 모시, 한지 등의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요의 감소로 인해 지금은 많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황룡장이 위치하고 있는 황룡면은 199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3개의 법정리와 26개 행정리, 48개 반(班)과 4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황룡장이 서는 지역은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월평(月坪) 1리로 지역사회에서는 신시장(新市場)이라고 불리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황룡장은 '화룡장'으로 흔히 불렸고, 장성 사람들은 황룡장 가는 것을 '모랭이(馬良의 순수한 우리말)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헌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황룡은 1770년에 발간된 동국문헌비고에 장시가 서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후 임원경제지(1830년)에도 명칭이 나와 있다. 1938년 일제 하의 기록물에는 황룡장 대신에 월평장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다. 200년 넘는 이전의 사실에 대한 파악은 어렵겠지만 이 문헌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황룡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문헌들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4일과 9일의 5일마다 장이 섰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정기시장이 열리는 간격이 매우 오래 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남도 북부 지역의 정기시장의 상권은 상인들의 행로를 통해 알 수 있다. 대략 장성군은

북부 광주시와 영광군, 고창군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어, 1일과 6일에는 광주 비아장이나 장성 사가리장이 서고, 2일과 7일에는 장성 사창장과 영광읍장이, 3일과 8일에는 광주 송정장이나 고창읍장이, 4일과 9일에는 황룡장이 서는 방식으로 순환되고 있다. 이 상권은 황룡장으로부터 바라보면, 나주로부터 연결되어 한양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형성된 것이고, 이 정기시장들이 대략 하나의 시장권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성의 정기시장으로는 현재 황룡장을 비롯하여 사창장, 약수장, 사가리장 등 네 곳이 있다. 이 중 황룡장의 역사가 가장 길고, 사창장은 1914년 행정개편으로 영광군에 속하던 장시가 장성으로 편입된 것이다. 1922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백양사역을 중심으로 사가리장이 생기고 중남역을 중심으로 신흥장이라는 장이 생성되었는데, 이 중 신흥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쇄되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일제시대까지 있었던 수산장은 해방 후 읍 소재지가 장성읍 수산리에서 장성읍 영천리로 옮겨 오면서 쇠퇴하여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다.

황룡장은 원래 황룡면 회사촌 용월정 부근(주민들은 이곳을 구장터 혹은 옛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장성읍 월산동에 속한 지역임)에서 열리던 것이 1922년 호남선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직후인 1926년 시장터가 좁고 교통도 상대적으로 불편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신시장으로부터 약 오리 정도 거리에 장성역이 들어선 것이 아마도 시장터를 옮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행정구역상 월평리 151-1번지 일대의 6500평 가량과 장성읍 영천리 삼월동 1371번지 일대의 2500평 정도를 합친 약 9000평 가량의 부지에서 장시가 열리고 있다. 이 지역은 원

래 하천부지였던 곳이었으나 시장이 옮겨오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땅을 조금만 파들어가면 모래흙이 나온다고 한다.

황룡장은 다른 마을공동체들과는 달리 철도나 도로를 따라 인구이동이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각성반이들로 이루어진 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일제 때부터 거주하였던, 즉 현재의 위치로 시장이 옮겨온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 지역으로 들어온 성씨로는 장흥 고씨, 경주 정씨, 진주 정씨, 전주 이씨 등을 들 수 있고, 해방 직후에는 울산 김씨가, 한국전쟁 후에는 밀양 박씨가, 1978년경에 창령 조씨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1900년경 광산군 대촌에서 구장터로 장흥 고씨 고**이 들어와 어물전을 했는데, 그 후 그의 아들이 1928년 신시장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장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일제 때에는 상권을 일본인들이 쥐고 있었는데, 잡화상, 지물포, 고리대금업, 정미소 등을 일본인들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당시 변진갑 장성읍장이 황룡장을 없애고 장을 읍으로 옮기고자 현 읍사무소 건너편 부지에 장을 개설하였으나 크게 번창하지 못하고 6개월만에 폐쇄된 반면에 황룡장은 당시 황룡시장 번영회장이었던 고윤경이 논 680평을 기증하여 더욱 활성화되게 되었다. 황룡장은 1964년 정기시장으로 공식인가를 받았으며 한때 인근 6개 군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장성읍 1371번지에 있던 우시장 부지가 좁아 1980년에 월평리 151-6번지로 우시장 터를 옮겼다.

1998년 현재 신시장리에는 총 140가구(이 중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며 농가도 32호에 이룸), 645명(남 328, 여 31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곳

에서 발견되는 주요 결사체로는 1988년 조직된 회원 70명 정도로 가장 큰 황룡시장번영회와 일심친목계(1990년 조직, 회원 25명 가량), 황우회(1991년 결성, 회원 60명 가량) 등을 들 수 있다.

4. 기억과 생애사 연구를 통한 장터의 기능 변용 및 성취과정

1) 조선 후기의 황룡장

황룡장은 예로부터 인근 지역에서 송정장과 함께 우시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아마도 동국문헌비고에 처음 장시로 기록이 남아 있던 18세기 중엽부터 소를 매개로 한 장시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의 황룡장에 대한 구술자료는 당시 장시의 생활상에 대한 편린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채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 시기에 황룡장은 정보가 교통되고 수집되며 관청의 홍보라든지, 사람 모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사고가 이루어지거나 오락과 유흥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장시의 개시일에 맞추어 수령방백들은 장시를 찾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포고나 게시물 등을 붙여 정보를 알렸다.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모집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정보교통의 장으로서 장시가 이용되는 것은 수령방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반 백성들도 사람을 찾거나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하여 이 곳을 이용하였다. 즉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회에 불평과 불만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을 숨긴 채 글을 써 붙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거나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 정국 하에서 반대 세력에 대한 처형 장소로 장터가 흔히 이용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지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노동력이나 혼담 등이 오고 가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고조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대의 혼담이 장시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여 오고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던 장시는 정부의 국가시책이나 체제안정을 위한 홍보의 장소로 그리고 일반 민중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환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개인의사 혹은 집단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아마도 이 시기의 장시에 대한 기억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오락 및 유흥문화에 대한 것일 것이다. 특히 황룡장은 우시장이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노린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밀주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 투전과 골패 등의 도박을 벌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노인들은 사당패 혹은 걸립패라고 불리는 민중놀이 집단들이 큰 상점 앞이나 장터 안의 광장에서 연회를 연출하거나 판소리꾼들이 사람들을 모아 판소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재인 집단들과 점포를 가진 상인들간에 밀접한 이해관계는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강하게 있었을 것이다. 판소리의 전성기가 18~19세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정확히 장시가 번성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판소리는 현장 연회이면서 일부 연극적인 표현 요소까지 구사하는 종합예술적 성격

을 띠고 있어 서민들의 회로애락을 대변하는 것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즉 장시는 판소리의 주요 무대임과 동시에 장시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백중 등의 큰 명절을 맞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여러 연회와 행사들이 성황리에 펼쳐졌다고 한다. 당시에는 음주나 연회구경이 거의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장시를 찾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민들은 제보하고 있다. 또한 점을 치거나 씨름이나 줄다리기, 윷놀이를 구경하는 등의 볼거리가 종합적으로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장시는 가장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 치하로 접어들면서도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일제 하의 황룡장

1910년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기 이전인 1908년 경부터 이미 장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규제, 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대한제국 하에서 지방관이 담당하고 있던 시장의 신설과 위치변경문제를 중앙의 農工商部로 이관하였고, 강점 후에는 시장을 변경할 경우에 도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도 시장에 대해 시장명, 연간 시장거래액, 주요 거래상품의 종류, 물화 집산지역, 新貨유통 상황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면밀히 실지조사를 수행하였다(조선총독부 1919). 또한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가지정리 과정에서 전통적 장시를 시읍의 중심지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황룡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1926년 장

터가 옮겨지게 된다.

조선총독부가 1914년 공포한 '시장규칙'(총독부령 제136호)에 나타난 시장정책은 공영제와 허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시장에 대한 개설권을 독점적이고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시장의 개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영제란 공공단체(道, 郡, 府)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읍, 면)이 아니면 시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허가제란 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설비, 개시일과 휴업일 및 시장의 개폐시간,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시장설치 이유 등을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는 장시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경찰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 경찰은 필요할 경우 시장 상인이나 장시에 온 사람들에게 대해 공안, 위생, 교통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는 일제가 장시가 불온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일제가 시장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한 목적은 1909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던 시장세의 원활한 징수에 있었다. 1910년대에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어 토지세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짐에 따라 시장세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고, 그 결과 1927년에 일제는 세제를 개편하여 시장세를 폐지하게 된다. 그 대신에 일제는 장시를 통해 원자재와 식량을 매집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즉 1차 생산품의 잉여분을 교환하던 장시가 점차 자본주의적인 상품이 교환되는 장소로 변모되고 농업 생산품이 반출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한상권(1981: 233)은 1915년부터 1940년까지의 전국적인 시장수의 변동과정을 추적하여 평안도와 강원도, 함경도의 시장수가 증가하고 있었

던데 비해 남부, 중부지방의 시장수는 거의 변하지 않은 대신에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황룡장이 협소한 구장터에서 보다 넓은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 것도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통로의 확충과 농산품의 원활한 매집을 위해서도 보다 규모가 큰 시장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크고, 관료들과 강한 연결망을 지니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점차 시장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황룡장의 경우, 상설상점들 중 한의원이나 약국, 음식점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설상점들을 일본인들이 경영하였고, 특이하게 중국인이 경영하던 포목점(비단장사) 두 곳과 술집 겸 음식점이 한 곳 있었다고 한다. 특히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 두 명 모두가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데, 이 사실은 그 경영규모가 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군 단위의 장시까지 일본인들의 금융자본이 침투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상설상점 중 비교적 규모가 컸던 것은 잡화점과 지물포, 담배가게, 정미소, 농기구상, 기름상회 등이었는데, 인공 치하에서 지서가 소각된 후 수복이 이루어진 후 임시지서로 사용되었던 노무라(野村)가 경영하던 잡화점이 황룡장에서는 가장 컸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음식점이나 술집, 어물전 등을 많이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설상점은 지역 주민들이 항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상점이었다. 그러나 황룡장을 장시답게 하는 것은 역시 장날이었다. 장성을 비롯한 인근 6개 군에서 몰려 온 사람들은 조금씩 싸운 나물이나 제철 과일을 내다 파는 사람들로부터 어물이나 각종 잡화를 장시를 돌면서 파는 전문 상인들까지 각양

각색이었다. 새벽 4시부터 열리는 우시장을 시작으로 6시경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오전 11시 정도가 되면 소를 비롯한 큰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고 생필품을 사기 위한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졌다. 새벽부터 장국 밥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거래를 마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개 아침 9시경부터 오후 2, 3시까지 사이에 재인들이 나서서 난장이 벌어지거나 판소리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장시에 대한 출입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자유로웠지만, 양반들은 거의 장에 출입하지 않고 대신 집안의 하인이나 머슴들을 보내 물건을 샀다고 한다.

황룡장의 성장에 있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인물이 고**이다. 그는 1900년 무렵에 광산군에서 구장터로 들어와 어물전 장사를 크게 하여 큰 돈을 벌었고, 1928년 장시가 옮겨 가는 것을 따라 신시장으로 옮겨와 어물전 장사를 하다가 1940년대 초부터 '대흥정미소'를 인수하여 정미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큰 돈을 모으게 되어 수백석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황룡시장 변영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해방 이후 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회사하기도 하였다. 그가 신시장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구장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일본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였고, 이 시도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5마력짜리 발동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정도로 기계화에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황룡장이 우시장으로 성기를 높였던 시기는 조선 후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 시기를 가리킨다. 소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사가 있거나 명절을 맞은 사람들이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곳을 찾았다. 소는 파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주재소가 순사가 나와서 항상 감시를 하었다고 한다. 이는 불법적인 도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졌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혹시 큰 돈을 만진 사람 중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이 소를 사고파는지 등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때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방을 붙이기도 하였고 거의 없었지만 범법자들에 대한 형 집행이 이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때의 형집행은 오라를 묶어 시장길을 걸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억되고 있다.

황룡장은 일제하에서 장시로서의 기능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외부사회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취급하는 품목과 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광주 등 인근 지역과의 교통이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 후 이 역할은 한동안 지속되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조그만 시골 장터로 변모하게 된다.

3) 해방 후 한국 전쟁 직후까지의 황룡장

해방 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물러가자 황룡장에도 일종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였다.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경영하던 상점을 누가 인수하느냐 하는 것이 장에서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인이 경영하던 상설상점은 거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지만, 일본

인과 중국인들이 경영하던 상설상점의 주인들은 모두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일본인들에게 혈값에 반강제적으로 인수하거나 비교적 큰 건물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담배집을 하던 일본인 상점은 해방 후 4년간 대동청년단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농기구 판매점은 해방 후 지서로 사용되다가 인공 치하에서 소각된 후 잡화상을 하던 일본인 상점 터로 지서가 옮겨가게 되었다. 비교적 큰 일본인 소유의 상점 중 기름집은 이**가 인수하여 미곡중개를 하면서 술장사를 하였고, 정미소는 임**이 인수하여 곡물과 비료를 판매했으며, 야채상을 하던 점포는 최**가 인수하여 과자점을 열었고, 잡화상은 문**이 인수하여 담배집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장판집은 김**이 인수하여 고무신을 판매하였고, 지물포는 김**가 인수하여 장판집을 경영하면서 국민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중국인이 경영하던 포목점 세 곳 중 한 곳은 박**이 인수하여 1947년 경부터 자전거포를, 또다른 한 곳은 김**가 인수하여 비단장사를 하였고, 다른 한 곳은 조**이 인수하여 미곡상을 열었다. 인수자들 중 두 김씨가 장성의 양반집안인 광산 김씨와 울산 김씨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타지에서 들어와 일제시대 때부터 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취급하던 상품을 그대로 잇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수한 사람들의 자본이나 기술, 경험 등의 개인적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정치적 혼란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장성지역사회는 좌우익의 대립이 심각하였고, 남로당 계열의 좌익들이 장성군 내의 소

규모 지역사회에서 우익들과 무력대립을 하던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놓여 있었다. 1947년 경 황룡장에서 경찰들이 좌익들 수십명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정점으로 하여 황룡장에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만들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낮에만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황룡장의 경기는 추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50년 7월 23일부터 같은 해 9월 29일 군당과 인민위원회가 입산하기까지, 아니면 같은 해 10월 22일 장성읍이 수복되고 군청과 경찰서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기까지 지속되었다. 그 후도 '산손님'들의 활동은 간단없이 이루어져 각지의 지서가 불타는 사건이 빈발했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의 매기는 예전만 못했고 출입하는 주민들의 수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그 대신 황룡장은 정치적 장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정치적 구호나 입장을 피력하는 방이 계속해서 붙여졌고, 이념적 대립의 공개적인 선전장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 장성의 대표적 우파 인물인 변** 당시 장성읍장이 장시를 읍사무소 근처로 옮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이는 읍장으로서 읍 지역을 장성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본디 장성은 1914년 행정개편으로 장성현 지역과 진원현 지역 그리고 영광군 삼계리 등이 합쳐진 지역이고, 다시 1930년대에 들어 성산리 지역에 있던 장성읍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까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성읍의 규모가 작고 경제적 중심지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여기에는 울산 김씨들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물들이 1920년 월평리에 월평(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알력도 작용했다고 한다. 즉 정치적 경

쟁자들이 키우고자 했던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어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 개설한 5일장(2일, 7일)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그다지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6개월 여만에 폐쇄되고 말았다. 이 때 지역사회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비교적 기반이 탄탄하던 변**의 시도를 좌절하게 만든 인물 중 한 사람이 앞에서 살펴본 당시 황룡시장 변영희 회장이었던 고**이다. 그는 자신의 논 680평을 황룡장의 규모 확대를 위해 회사함으로써 황룡장이 다시 장성의 중심 장소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이 사건 이후 황룡장은 약 10년 간에 걸쳐 지역사회의 중심 장소, 즉 읍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황룡장은 장성군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지속하게 되었지만, 근대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면서 교통 등이 한결 편리해짐에 따라 서서히 광주권에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지위를 잃게 된다.

4) 근대화 과정을 거친 현재의 황룡장

1965년을 정점으로 하여 장성군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황룡장이 점차 중요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준다. 인근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 서방시장 등을 출입하는 주민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황룡장은 우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권을 잃어 가게 되었다.

대략 이 곳 주민들이 황룡장이 쇠락을 맞게 된 결정적 계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73년의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이다. 개통 직후 광주행 직행 버스가 생겨 그 이전에 있었던 광주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군내버스와 함께 광주로 시장권이

흡수되게 되었다. 이 즈음부터 이미 공산품들을 광주 혹은 드물지만 서울로부터 가져와서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황룡장의 상권은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농을 통해 농업의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70년대 초중반 이전까지 황룡장은 그런대로 우시장으로서 성가를 유지하였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기계화가 서서히 진전되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쇠똥 치우기 바빴던' 시절은 다 지나간 것이다.

1980년 지저분하고 부지가 좁아 황룡장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던 우시장을 축협 밑의 다리 아래로 옮겼다.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넓고 소의 매매에 필요한 현대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1987년의 소 파동을 겪으면서 매매되는 소의 절대두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옛 우시장 터에서는 새벽 4시에 개장해서 오전 11시까지 소가 취급되었지만 지금은 새벽 4시에 개장하여 새벽 6시에 파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소를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상품으로 보지 않고, 팔더라도 장에서 소비할 정도로 소 사육자들이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로 장성군내나 광주시, 담양군, 영광군 등에서 황룡장을 찾는 소비자들 역시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군이 황룡장을 찾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축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황룡장의 상설상점들은 다른 농촌의 상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멍가게 수준을 넘지 않는 조그만 점포들이 늘어서 있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풍경이다. 다른 시골보다는 상점이 많지만 몇몇 곳은 개점휴업상태로 낡은 간판만이 예전에 상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길을 따라 택시회사와 화물차 회사, 정미소와 한약방 및 약국, 주조장, 식료품점, 청과물점, 건어물상회, 다방, 미용실, 이발관, 세

탁소, 미곡상, 사료상, 철물점, 자전거 판매점, 농기구 수리상, 포목의류 및 이불점, 전과상회, 농약자재상, 지업사, 신발가게, 시계상 등이 늘어서 있다. 이들 상점 이외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식당과 식육점인데, 거의 매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상설상점들을 중심으로 번영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번영회는 장세수납도 하고 있고 수납된 장세를 군청 재무과에 납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장세들은 장터를 청소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곳에 쓰인다. 한때 번영회는 황룡장의 중요한 사회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의욕적으로 친목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임원들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구상을 피력하기는 하지만, 실제 실현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에 1980년 우시장 자리를 옮기고, 원래의 우시장 자리에 장육을 지어 분양하고자 했지만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설상점들은 대부분 생산지로부터 직접 물건을 가져다 팔고 있다. 어물은 목포, 여수, 군산, 부산 등지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도매상이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다 팔고 있다. 최근 들어서 부산쪽으로부터 가져 오는 어물의 양이 점차 늘고 있다. 이는 냉동차를 통한 수송이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도매상들은 새벽에 물건을 내 주고 저녁에 물건값을 받으면서 냉장고가 없는 소매상들의 남은 어물들을 냉장고에 보관해 주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성수산이라는 대형냉장창고 회사이다. 건어물의 경우는 목포나 여수, 속초 등에서 1년에 한두번 꼴로 직접 가져와서 창고에 보관해 두고 팔고 있다. 그 이외의 공산품들은 서울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떠어다가 팔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상

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장이 서는 날에는 평일보다 장이 활기를 띠지만, 트럭이나 포장마차를 끌고 와서 좌판을 벌리고 장사를 하는 뜨내기 장사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야채류나 청과류, 나물, 강아지 등을 가지고 와 소규모로 좌판을 벌리고 장사하고 있다. 전문 이동상들은 정기시장의 장날에 맞추어 전국을 돌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장에 비해 황룡장이 1980년대 이래 유난히 쇠락한 대표적인 장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장이 서더라도 매기가 거의 없고 일단 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들 한다. 그래서 이들 이동상들은 황룡장에서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쉬어 가는 날로 생각하고 찾는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황룡장에는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산물이 없고 축산물 정도만이 과거의 전통을 이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많이 팔리는 정도라고 한다.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권을 지니고 장성군의 읍장으로서 활성화되었던 황룡장은 광주시의 상권이 확대되면서 점차 자생력을 지니지 못한 소규모 시골 장터로 바뀌었다. 교통이 편리해져 수송이 원활해지고 저장수단이 발달되었으며,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황룡장은 더욱 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황룡장의 사례를 통해 시골 장시의 변용과정을 구술과 기억자료에 의해 재구성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장

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역사학 쪽으로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인류학의 민족지적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황룡장은 18세기 중엽에 장시가 처음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시장 출현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조선 후기경 이미 인근 6개군의 주민들이 황룡장을 찾는 장시로 성립되어 있었고, 특히 우시장으로서 성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장시가 변성하게 된 데에는 세금 징수와 1차 산품의 매집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가 황룡장으로서는 전성기였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장터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시키면서 다시 장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근대화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물결이 밀려 오면서 독자적인 상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광주권에 편입되어 쇠락을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확충과 이농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는 우시장으로서의 황룡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데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지금은 인근에서도 규모가 작은 시골 장터로 변했고 개점휴업상태의 상설 상점들도 많은 상태이다. 앞으로 황룡장은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특산품의 유일한 유통 경로로 자리매김되는 등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술과 기억에 의존한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연구는 시기별 비교자료의 균질성 혹은 형평성이라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난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구술자의 기억이 지니는 정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사회문화적 위치와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방법론은 기여차가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완벽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학문분야가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연구대상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인과 소비자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황룡장과 관련된 6개 군 지역 전체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연망의 구성에 있어서 문화적 연결고리의 역할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통혼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망을 재구성하는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세 번째, 상인들의 경영분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황룡장에서 오랜 기간 상업에 종사하던 상인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로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자료>

국립광주박물관, 2000, 광산김씨 집성촌의 역사와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5, 강원도시장민속.
 광주민속박물관, 2001, 광주의 재래시장.
 전라남도, 1985, 문화유적총람.
 전라남도, 1981, 문화재도록.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장성군지부편, 1976, 장성군 문화재일람.
 장성군·장성문화원 편, 1989, 장성군마을사-황룡리 편.
 長城郡史編纂委員會, 1982, 長城郡史.
 저자 미상, 1899, 長城郡邑誌.
 장성문화원 편, 1978, 장성향토문화 1~5.
 전라남도, 1985, 전남읍면편람.
 전라남도, 1988, 전남의 마을 유래자료집.
 全羅南道誌編纂委員會, 1982~1984, 全羅南道誌 1~3.
 朝鮮總督府, 1912, 地方行政地域名稱一覽.
 장성향토문화개발협의회 편, 1974, (장성)향토문화. 제 2집.

<논저>

고석규, 1997, “영산강유역의 장터문화와 남도민의 삶,” 향토문화 17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김대길, 1993, “조선후기 장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대길, 2000,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가람기획.
 김병하, 1963, “보부상에 대한 고찰,” 경제학논집 제3권 제1호, 중앙대학교.
 김삼현, 1992, “고려후기 장시에 관한 연구,” 명지사론, 명지사학회.
 김일곤, 1962, “이조시대의 향시와 지방상업,” 경제 제 5집, 부산대학교.
 류우익, 1972, “한국의 정기시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낙산지리 제2호.
 박래경, 1980, “조선조 읍지 개관과 장성읍지고,” 향토문화 6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박선희, 1996, “전북지방 정기장시의 특성과 변화 - 조선후기 일제시대까지,” 서울대 사회교육과 석사 논문.
 안진오 외, 1998, “장성황룡,” 향토문화개발협의회.

- 오성, 1987, “조선후기 목재상인에 대한 일연구,” 동아 연구 제3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이경식, 1987,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 이덕성, 1976, “한국의 정기시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논집 제2집.
- 이병직, 1983, “장성군 마을사 연구의 실제,” 향토문화 8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 이병직, 1996, “장성군 마을사 연구의 실제,” 향토사연구 7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 이세영, 1983, “18·19세기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의 변동,” 한국사론 제15집.
- 이재하 외, 1992, “한국의 장시: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 이철호, 1991, 장터순례, 도서출판 유림.
- 이현창, 1990,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호영, 1986, “19세기 은진 경강읍의 상품유통구조,” 한국사론 제15집.
- 임병태, 1976, “한국 재래시장의 발달연구,” 목포교육대학교 논문집, 목포대학교.
- 정승모, 1983, “농촌 정기시장체제와 농민 지역사회구조,” 호남문화연구 제13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시장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서울: 웅진닷컴.
- 차행선, 1991, “황룡강유역의 마을형성과 지명유래,” 향토문화 11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 한상권, 1982, “18세기말~19세기 초의 시장발달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사론 7집.
- 宮原 免一, 1956, “十五・六世紀朝鮮における地方市,” 朝鮮學報 제9집.
- 宮原 免一, 1968, “李朝初期の産業地圖について,” 朝鮮學報 제48집.
- Appleby, G., 1976, “The Role of Urban Food Needs in Regional Development, Puno, Peru,” *Regional Analysis* 1.
- Berdan, F., 1989, “Trade and Markets in Precapitalist States,” *Economic Anthropology*, pp.78-107.
- Berry, B. J. L., 1967,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glewood-Cliffe: Prentice Hall.
- Blanton, R. E., 1983, “Factors Underlying the Origin and Evolution of Market Systems,” *Economic Anthropology* 1, pp.55-66.
- Meillassoux, C., 1971,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Trade and Markets in West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Plattner, S., 1975, “Rural Market Networks,” *Scientific American* 232, pp.66-79.
- Plattner, S., 1980, “Economic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Change in a Developing Area of Mexico,” *Journal of Developing Areas* 14, pp.469-482.
- Sanders, W., 1956, “The Central Mexican Sybiotic Region: A Study in Prehistoric Settlement Pattern,” in Willey, G. R.(ed.), *Prehistoric Settlement Patterns in the New World*, New York: Wenner-Gren Foundation for Anthropological Research.
- Service, E., 1975, *Origins of the State and Civilization*, New York: Norton.
- Skinner, G. W., 1964,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24, pp.3-43; 195-228; 363-399.
- Skinner, G. W., 1985, “Rural Marketing in China: Revival and Reappraisal,” in Plattner, S. (eds.), *Markets and Marketing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Anthropology.
- Smith, C. A., 1974, “Economics of Marketing Systems: Models from Economic Geograph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 pp.167-201.
- Smith, C. A., 1976, *Regional Analysis*, Volumes 1 & 2, New York: Academic Press.
- Smith, C. A., 1977, “How Marketing Systems Affect

Economic Opportunity in Agrarian Societies," in Halperin, R. and Dow, J.(eds.), *Peasant Livelihood*, New York: St. Martin's Press.

Vance, J., 1970, *The Merchant's World*, Englewood-Cliffe: Prentice Hall.

Waddell, E., 1972, *The Mound Builder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olf, E., 1955, "Types of Latin American Peasantry," *American Anthropologist* 57, pp.452-471.

교신저자(Correspondence): 홍성흡,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Tel: 062-530-2695, Fax: 062-530-2699, E-mail: sibung@chonnam.ac.kr

Transformation of Local Community and Local Marketplace

Sung-Heup Hong*

**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ibung@chonnam.ac.kr)*

Abstract : This study, based on an ethnographic field-research in Hwangryong marketplace at Jangsung, explores the transformational process of local community and local marketplace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 attempt to use methodology of oral statement and memory. In socio-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ence, Hwangryong market which made the 18th century was central place of Jangsung. It was famous of cattle marketplace from the end of Lee Dynasty. The heyday of Hwangryong market is vitalized in the ruling of Japan. Japanese government collect tax and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is marketplace. After independence of 1945, the economic function of it was weakened, but the other side political function was strengthened.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status of this market was revitalized after the end of Korean war notwithstanding trial of moving of marketplace. But peasant migration and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from the end of 1950' had been brought about a critical moment to Hwangryong marketplace as cattle market. The opening of Honam express road at 1973 was decisively weakened socio-economic, cultural function and role of this marketplace. Consequently, Hwangryong marketplace was transformed small local market. The identity of cattle marketplace was rarely remained in recent. This inclination will not be stopped if not linking to local festival or invention of local specialities.

Key Words : Jangsung Hwangryong, local marketplace, oral statement and memory, marketsphere